

2021 경기도 청년연구 공모 결과보고서

# 경기도 청년공간 현황 및 근로자 실태조사를 통한 청년공간 발전 방향

청년을 위한 공간은 있다, 없다

연구책임 | 강현석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 청년연구공모사업 보고서는 청년들이 청년 관련 현안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9 Fax : 070-8220-0200 E-mail : kimjm1785@ggwvf.or.kr

## 요약

### □ 연구목적

연구목적은 경기도에 위치한 청년공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간 관리자와 현장 근무자가 청년공간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청년공간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

### □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였다.

### □ 개선방안

청년공간 지원 정책 마련, 담당자 회의 정기화, 청년공간 현장 근무자 교육 마련

### □ 정책적 제언

청년공간의 현황파악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후 청년공간에 대한 정의, 매뉴얼에 대한 배포가 시급함



# 목차

## I | 서론 / 23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7

## II | 청년공간 운영현황 / 243

- 1. 청년공간이란 무엇인가 ..... 243
- 2. 경기도 청년공간 현황 ..... 244

## III | 연구 분석 / 249

- 1. 설문조사 현황 ..... 249
- 2. 현장 근무자 설문조사 ..... 258

## IV | 결론 / 271

- 1. 결론 및 시사점 ..... 271

## | 참고문헌 / 273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청년 집단이란 무엇인가

청년이라는 집단은 무엇인가? 청년이라는 화두가 한국사회에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은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에 노인, 청소년과 같은 다양한 계층에 밀려 청년이라는 집단은 그렇게 주목 받아온 집단이 아니었다. 특히 공공의 정책적 측면에 있어 청년이라는 집단을 주목표로 하는 정책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청년이라는 집단이 가진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 청년은 각 개인의 관심사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며,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아래 ‘집단’이라는 형태를 형성하지 못하고 개인들의 스펙 쌓기를 통한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청년들을 위한 단체나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이권 단체는 매우 적은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의 절대적인 양도 타 집단에 비해 적은 편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런 청년집단의 특수성의 변화가 보였던 것은 2010년대에 있었던 반값 등록금 시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청년집단이 사회적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낸 경험은 사실 매우 많았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주 참여 집단은 청년집단이었다. 민주화 운동 시기에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시위를 조직,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다른 연령층에게도 암묵적으로 동의된 일종의 청년층의 특권이었다. 국가 권력의 불합리성에 저항하는, 사심이 없는 ‘민주화’라는 공공선에 대한 목표를 가진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이루어지며 청년들은 더 이상 그들의 특권이었던 불합리성에 저항할 특권을 일부 상실하게 된다. 물론 모든 시위, 집단적인 목소리가 완전히 사

라진 것은 아니었다. 1990년 중 후반에도 노동운동, 환경운동 등에서 청년들의 움직임은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저항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IMF 금융위기 이다. 이전까지 청년들은 학력의 낮고 높음을 떠나서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왔다. 이는 한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을 통해 노동인구를 계속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일자리나 삶 전반에 있어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한국사회를 급격하게 덮쳐온 금융위기가 한국국민의 삶 전반을 송두리째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 집단의 사고 유형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게 된다. 이전까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해온 청년들에게 이시기 당면한 과제는 변화했다. 바로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었다. 노동법의 수정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사회로 급격히 전환된 한국사회에 청년 집단의 힘은 없었다. 집단이 사라지며, 청년들은 개개인이 각자 도생하여 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된다. 또한 이전 청년이라는 집단이 가진 정체성 중 특수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대학 진학률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사이를 남짓하던 대학 진학률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두 배인 60퍼센트를 넘게 되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증가는 청년들에게 요구했던 목소리 중 하나였던 엘리트적인 인식을 약화시킨다. 1960~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대학을 다니던, 다니지 않던 청년들이 대다수 참여했던 운동이었지만, 그 중심은 대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라는 위상을 높게 만들었다. 그러나 청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대학에 재학을 하며, 타 집단, 연령대의 기대는 한편으로 줄어들게 된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청년들의 집단은 대부분 소실되게 된다. 물론 이 시기에 모든 청년집단이 소실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이전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청년들이었다. 청년들 개인이 시위에 참여하는 상황은 있으나. 이전에 비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약 10년간 청년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사라진 시기에도 청년 세대를 규정하려는 사회학적 분석은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우석훈의 88만원 세대가 그 예시이다. 88만원 세대는 청년세대가 이전과 다른 특수적인 모습을 포착하는데 성공한다. 88만원 세대라는 이름에서 88만 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인 119만 원에 이십대의 평균 소득 비율 74퍼센트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다. 결국 88만 원 세대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십대의 평균 임금 소득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이십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학적 단어의 등장은 분명히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사회의 청년의 관심사는 이제 취업으로 완벽히 전환을 이루었고, 만일 취업을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런 사항에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리와 다름없는 요구이다. 그러나 2011년 반값 등록금 시위를 통해 청년들의 정체성은 이전에 민주화 과정에서 저항형 청년, 금융위기 시기에 노력하는 청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첫 번째로 이 시기의 시위의 목표는 사회적 정의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 1990년 민주화, 노동운동은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한 문제해결의 촉구였다면, 반값등록금 시위는 지극히 청년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기 문제로 내면화한 채 인식하며 자기 계발에 몰두한 것이 2000년대 이후 십년간 보인 청년들의 모습이라면 2010년대 청년은 청년 개인에게 내려진 불합리함에 맞서기 위해 행동 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시위 참여자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이전까지의 시위는 시위의 지도부의 체계와 전달에 맡겨 시위 참여자가 양식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형태였다면, 이 시기의 시위는 학생들 개인이 시위에 참여하라는 압박적인 요구 없이 시위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전의 지도부 격인 학생회라는 조직이 있지만, 청년들이 일과시간, 아르바이트 시간을 쪼개어 거리에 나온 것은 청년들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전과 달리 1인 스피치와 같이 시위 영역에서 개인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은 2000년대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것조차 꺼려했던 청년들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반값등록금 시위가 중요한 위상을 가지하는 까닭은 시위를 통해 실제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더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값등록금 시위를 통해 등록금 동결을 포함해 등록금 인하 과정에 국내 대부분의 대학이 참여하였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역시 성공하게 된다. 이 과정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억눌린 청년들이 이루어낸 자신의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정책적, 사회적 성취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의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 □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청년정책 추이

반값 등록금 시위를 토대로 청년들은 자신들의 삶을 정책, 사회적 측면에서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정책적 측면에서 사각지대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동안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았던 기성세대의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된다. 이전의 청년들과 달리 2010년대의 청년들은 사회,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삶을 좀 더 안정적이고,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한 정치권은 정책적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다. 2010년 이후의 현재 국가의 청년 한국의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2015년 1월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지방정부가 모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며 발전해왔고 2019년부터는 문재인 정부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 확립을 정치개혁의 비전으로 삼아 청년정책을 적극 탐색하고 있다는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연구:광역 지방정부 실태 비교를 통해 오세재 | 현대정치연구소)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청년 정책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은 19개 부서에서 전 방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처 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고용정책,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교육부는 산학협력 및 직업교육정책, 중소기업청은 창업진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각종 청년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청년정책은 주로 고용부와 교육부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미취업자, 창업자, 기업 등 대상별로 시행하고 있다. (오재호, 이현우, 천영석 (2018).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 정책연구) 또한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와 청년지원팀을 중심으로 13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면 소관부서에서 계획에 따른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도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에 따라 경기도는 아동청소년과를 청년정책위원회를 주관부서로 정하였고 청년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를 근거로 구성되어 청년 참여, 역량 강화, 취업 및 생활 질 향상 지원을 위해 경기도 분야별 청년정책 사업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오재호, 이현우, 천영석 (2018).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 정책연구) 정부와 경기도 청년사업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면 대체로 일자리 창출에 직접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경기도 26개 주요 청년 사업은 일자리 50%, 주거19%, 금융 15%, 역량강화 12%, 상담 4%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정부와 경기도 청년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반면 직업능력 및 역량강화, 청년과의 소통은 그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재호, 이현우, 천영석 (2018).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 정책연구) 그러나 경기도 정책의 전반적인 틀에서 청년 정책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2020년 8월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담은 청년 기본법이 시행되며 청년 정책 지원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 II 청년공간 운영현황

### 1. 청년공간이란 무엇인가

앞서 살핀 한국 청년 정책과 경기도의 청년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청년공간은 개설 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었다. 청년공간을 처음으로 연 지자체는 서울로 확인되며 2013년 서울 청년허브 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무중력지대 G밸리와 무중력지대 대방동을 개관하게 되었다. 서울을 시작으로 청년공간은 확대되었으며 경기도는 도 관할이 아닌, 각 지자체 관할 청년공간을 2016년부터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관계망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또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취지에서 조성되는 공간이라고 여겨진다. 국내에 ‘청년공간’의 개념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연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공간’에 대한 정의도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도차원에서 2018년 안산, 양주의 청년공간인 경기 내일 스퀘어 조성계획을 착수하며 청년공간 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경기 내일스퀘어는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터디룸, 상담실, 다목적 홀, 세미나룸, 일자리카페 등 취·창업 공간과 문화행사, 공모전, 전시회, 정책토론, 동아리활동, 공연행사 등 여가와 휴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을 강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의 지원과 더불어 각각의 청년공간을 현재 개설하였거나 용역에 착수 하였다. 그러나 청년공간을 지칭하는 폭은 매우 넓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청년공간을 규정하는 상세 조건으로

1. 청년(만 19세~39세)을 위해서 건립된 독립된 공간이다.
2. 공간에 청년 방문자를 응대할 근로자가 상주한다.

3. 1인 기업,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한 공간은 제외한다.

4. 운영시간 내 청년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

조건으로 삼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런 조사 방식은 상당히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청년 공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비추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기 때문에 각 공간의 특성은 해당 공간의 운영자와 실무자의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청년공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청년공간의 나아갈 구체적인 목표가 획일화 되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지자체에서 새롭게 개설되는 공간을 운영할 실무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어려운 문제이다. 물론 공간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정확한 방침을 가지고 청년공간을 운영한다면 해결될 지점이나, 공무원의 경우 순환 근무제로 담당자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 한번 씩은 교체되는 점이 있다. 이는 정확한 청년공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담당자의 교체로 청년공간의 정체성이 매번 변화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공간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청년공간의 민간 위탁 기간은 2년 내지 3년인데 위탁기관이 달라지면 기관에 따라 청년공간의 방향과 정체성은 재정립하게 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도 청년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 2. 경기도 청년공간 현황

현재 경기도에 있는 청년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응답일 것이다. 경기도의 청년공간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로 각 공간의 정확한 이름을 알아서 검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웹 포털에 청년공간의 위치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단순히 청년공간으로 검색할 경우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두 번째로 경기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서이다. 경기청년포털에 등재된 청년공간은 79곳이다. 이는 청소년 문화의집, 평생학습관 같이 청년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공간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년들이 실

제로 ‘청년공간’을 찾기 어렵게 하는 실정이다. 경기청년포털에서 청년공간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각 순수공간, 통합지원형,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으로 분류되었다. 순수공간은 총 5곳, 통합지원형은 48곳, 취업지원형 9곳, 창업지원형 17곳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분류 체계는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간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수치로 상당한 허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내 청년공간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비교적 가장 정확한 것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온라인 청년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공간은 34곳으로 본 연구자가 찾은 청년공간 45곳이라는 수치에 가장 근접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청년공간과 비 운영중인 공간을 상시로 업데이트해 표시하여 청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확인된 청년 공간 45곳은 다음과 같다.

청취다방, 28청춘창업소,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청춘, 씬미당 (초막골 청년살롱), 김포청년공간 창공 사우청년지원센터, 남양주시 일자리카페, 어수정 청년공간, 원미청정구역, 청년예술창작소, 청년지원센터 '청년이 봄', 판교일자리센터, 청년 job+마당, 수원청년비람지대, 경기상상캠퍼스,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누리, 청년살롱, 경기청년협업마을, 청년스테이션, 경기내일스퀘어 안산 '상상대로', 청년큐브-한양캠프, 청년큐브-예대캠프, 청년큐브-초지캠프, 청년큐브-디지털제조스튜디오, 범계역 청년출구, 동안 청년오피스, 만안 청년오피스, 양주시청년센터, 경기 내일스퀘어 양평, 양평청년공간 오름, 양서면 청년공간 탄탄회관, 내일스퀘어 여주청년센터,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내일스퀘어), 연천청년센터, 유갑스, 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청년, 문화 놀다', 용인청년 LAB 수지, 용인청년LAB 기흥, 용인청년LAB 처인, 청년발전소 고천센터, 청년발전소 포일센터, 하남시 청년해냄센터, 청청당당, H . E . Y 청년지원센터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경기도의 청년공간에서 실제 청년공간의 공간유형별 분류에서 청년공간이 45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경기청년포털에 등재되어 있는 청년공간의 유형을 묻는 설문이 있었는데, 응답자 중 상당수가 경기청년포털의 네 가지 분류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있어왔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은 청년공간의 운영 방식에 의한 공간 분류로 해당될 것이다.

첫 번째로 경기 내일 스퀘어를 통한 운영이다. 경기 내일 스퀘어[는 경기도 지자체에 경기도가 청년공간 공모를 받아 설립하는 청년공간으로, 경기도가 청년공간 형성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며, 일부는 민간운영하기도 한다. 처음 설계 시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 까닭에 경기 내일 스퀘어의 경우 규모가 상당하며, 청년공간의 일부가 좁은 규모로 인해 원치 않게 특성화 공간으로 운영되는 반면, 공간 이용, 운용에 있어서 내일스퀘어는 보다 폭 넓은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자체를 통한 운영이다. 경기 내일 스퀘어의 운영은 2018년에 시작한 반면에 지자체의 청년공간은 2015년부터 개설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처음 설립된 청년공간의 개소가 2013년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경기도 지자체의 청년공간 개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의 재정 지원의 형편에 따라 청년공간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있어 각 지자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정 규모이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 내일 스퀘어 청년공간과 차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경기도보다 먼저 청년공간을 설립 한만큼 청년공간의 실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운영 지침에 대해서는 선점하여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자체의 운영방식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지자체 직접 운영

지자체의 정식 운영은 지자체가 민간의 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청년공간의 프로그램과 운영전반을 모두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개설되지 얼마 안 된 청년공간에서 사용하는 운영 방식으로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다고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년공간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청년 정책의 핵심으로 꼽는 지자체도 존재한다. 이런 지자체의 경우에, 상당수가 비교적 초창기 (2015년~2017년)에 설립한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의 장점은 청년정책의 교두보로서 담당 공무원이 청년공간에 수시로 방문하며, 청년공간과 정책의 실황을 수시로 알 수 있는 점이 있으며, 이는 이후 청년 정책 수립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공간 운영 수립에 있어서 청년의 의견을 이해하기 보다는 지자체의 편의나 이해에 따라 공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단점 역시 내포한다.



## 2) 민간위탁 운영

민간 위탁 운영은 해당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 청년단체, 협동조합이 공간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지칭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 자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여도

프로그램을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사항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지자체에 청년공간이 개설된 지 2년 이상된 지자체에서 보이고 있는 속성으로 청년공간 개설 후 청년공간이 안정성을 찾은 후에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민간 위탁의 장점은 지자체나 공무원 집단의 특성을 일부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활동에 있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으며, 청년의 눈높이 맞춘 공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보이는 장점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공간 설립 이후에 운영하는 것의 특성상 이미 인테리어나, 공간 입지에 대한 사전 기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배제되며, 이미 만들어진 공간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민간에서 운영되더라도 운영비의 지급 주체는 각 지자체이기 때문에 운영방식에 있어 맞추어야 하는 양식이 있으며 청년공간 운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체로 방문자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와 같은 단순한 수치로 평가 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각 청년공간 당 민간 위탁의 기간은 짧게는 2년에 서 길게는 3년으로 계약되는데, 계약의 연장을 위해서 민간 운영 청년공간 역시 단순한 수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남는다. 짧은 계약기간의 특성상 청년공간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지자체내 혹은 도내의 청년공간과의 교류 역시 어려운 것이 현 실태이다.

## 3) 민간\_지자체 공동운영

민간\_지자체 공동운영은 매우 적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방식이다. 이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청년공간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개입을 진행하고 나머지 공간 운영과 프로그램에 있어 개입을 최소화 하는 운영방식이다. 원칙적으로는 청년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실무적인 개입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개입은 상당부분 민간위탁 운영방식과 비슷한 수준임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취지와는 상당히 퇴색된 운영방식의 일종이다. 그러나 민간의 운영에 있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한 것은 위탁운영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공동운영의 특성상 상 하 관계의 수직적 구조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에 있어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회의를 통해 해결하

고자 한다. 따라서 운영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청년공간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민간 위탁 운영 방식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어렵고 마찬가지로 수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하까지 지자체를 통한 운영 방식 세 가지와 그 특성과 장, 단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경기도 청년공간 운영 방식의 세 번째로 민간 운영 방식이다.

#### **4) 민간 운영**

민간운영 방식은 매우 적은 운영방식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임대한 건물을 포함해 재정적 지원 없이 운영하는 민간이 청년공간 운영에 있어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하는 구조이다. 민간 운영공간은 청년들이 만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종의 공유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만큼 각 공간은 민간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관리자 상주와 같은 부분에서 지자체 운영, 민간 위탁 운영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 III 연구 분석

청년공간 연구 분석은 도내 청년공간에 구글 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타 지자체 (서울, 지방 광역도시)의 청년공간을 답사하여 분석하여 진행하였다.

#### 1. 설문조사 현황

설문조사 기간에 청년공간은 45곳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공간의 정체성을 청년공간으로 규정짓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몇 곳을 제외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 협조 공문의 부재로 인한 조사 거부 대상지가 있었다는 것을 밝힌다.

설문조사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각 청년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집단과 청년공간에서 실제 업무 처리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각 집단의 응답률은 책임자 집단의 경우 경기 청년공간 45곳 중에서 총 11곳 11인 책임자가 응답하여 24% 응답률을 보였다. 근로자 집단의 경우 경기 청년공간 45곳 중에 총 18곳이 29인 근로자가 응답하여 40% 응답률을 보였다. 책임자 집단의 경우 응답률이 저조하여 가치 있는 데이터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문조사 이후 진행될 인터뷰를 통해 보완을 진행하였고 청년공간에서 책임자, 근로자의 문제가 공간에 따라 크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책임자 집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인용한다. 그러나 데이터에 있어 확대,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결과임을 사전에 밝혀둔다.

## 1) 담당자 설문조사

경기도 내 청년공간 11곳이 참여하였으며, 담당자는 해당 청년공간의 관리, 책임자를 지칭한다.

담당자의 청년공간 업무 담당 기간

담당자의 청년공간 업무 담당기간은 짧게는 4개월부터 길게는 4년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값은 1년 2개월로 담당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은 경기도의 청년공간이 개설한지 얼마 안 된 까닭일 것이다.

### 청년공간의 정체성 문제

청년공간의 정의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통합된 정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원은 담당자가 생각하는 청년공간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였다.

-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
- 정보, 교류, 성장, 문화가 있는 곳
- 지역 청년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청년 예술인이 제약 없이 문화예술 창작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소통하여 지역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
- 청년들의 쉼터, 배움터, 놀이터, 자유공간
-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곳
- 같은 환경에 처한 청년들을 만나서 현 상황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위로, 공감, 응원을 나누는 곳
- 우리(청년) 세대만을 위한 곳 - 타 세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해 볼 수 있는 공간
- 재미, 의미, 흥미로운 것들과 접할 수 있는 곳
- 학교(집단, 규칙 중시) 보다는 내 개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소
-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취창업 지원을 도와주는 곳
- 갈 곳도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많아 답답한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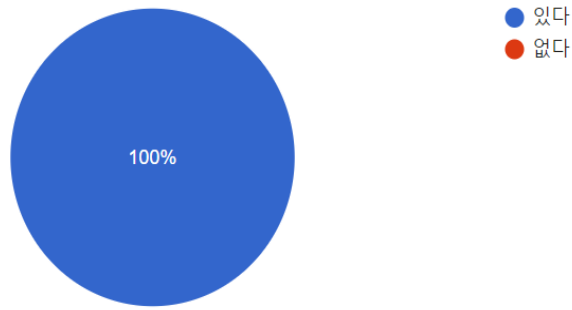
- 청년정보 및 교육의 허브공간
- 나(개인)를 완성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초년생인 청년 대상 커뮤니티 공간으로 상호간 교류 지원 및 공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지원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서비스의 일환
- 청년들이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공간
- 청년을 위한 서비스가 있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청년들의 취업특화공간으로 취업지원과 소통을 위한 곳
- 청년들을 위한 활동공간

청년공간이라는 공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각 청년공간 담당자가 내린 청년 공간에 대한 정의는 유용하게 쓰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상의 설문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청년공간의 정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상적인 것부터 구체적인 답까지, 응답의 유형은 다양했다고 볼 수 있다. 해석하면 청년공간의 이용자, 활동의 영역에서는 비슷한 응답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무엇 을에 해당하는, 청년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지원해주고,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문화, 레저, 취업, 자기계발) 중에 어떤 것을 독려해주는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청년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응답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청년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지원도 어렵다는 응답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 연구자는 판단한다. 따라서 청년공간의 정의와 역할 중 청년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해당 조사지에 가장 많이 언급 된 것은 ‘청년’, ‘교류’, ‘문화’, ‘활동’ 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공간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들의 교류를 돕고, 청년들의 문화 체험과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 청년공간이 설립된 지자체의 청년 조례현황

청년공간이 위치한 지자체에 청년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응답 11개



청년공간이 위치한 지자체는 모두 청년 관련 조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공간의 설립은 청년 조례를 통해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청년공간 이용자 통계 현황

일 평균 30명, 월 평균 300명

방역 지침 4단계 운영으로 인한 임시 휴관 중 - 연 평균 인원 산출 불가

일 평균 10명, 월 평균 200명

일 평균 41명, 월 평균 1025명

일 평균 11명, 월 평균 256명

일 평균 14.3명, 월 평균 308명

일 평균 50명, 월 평균 1,000명

일 평균 16명, 월 평균 400명

일 평균 19명, 월 평균 227명

일 평균 6명, 월 평균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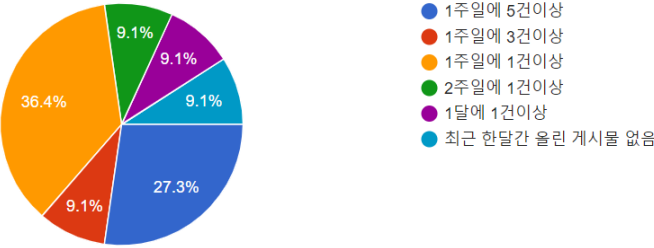
일 평균 140명, 월 평균 4,000

방문자수는 각 청년공간마다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공간의 개소가 코로나 사태 이전인 공간에서 방문자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개설된 공간의 경우, 홍보부족과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잦은 휴무와 최대 인원 조정과 같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웹 사이트 운영 현황

SNS 플랫폼에 게시물을 올리는 빈도를 알려주십시오 (최근 한달간)

응답 1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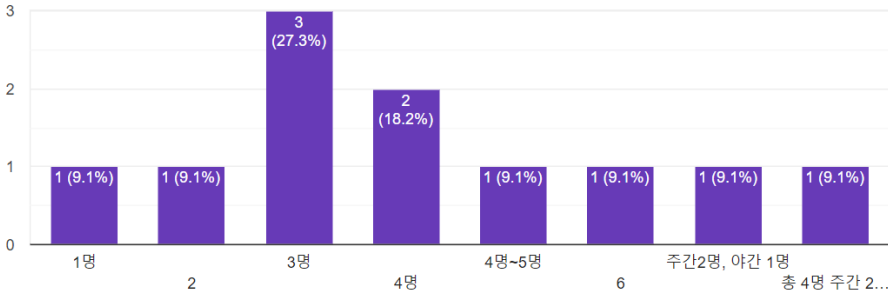
웹사이트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공간 11곳 중 9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두 곳의 경우 기관 상부기관 블로그에 공유 혹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SNS의 경우 11곳 중 10곳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SNS에 게시글을 올리는 운영 현황이다.

다음은 청년공간 상주 근로자의 현황이다.

청년공간에서 상주하는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응답 11개



상주 근로자는 1명부터 최대 6명 까지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근로자와 야간 근로자를 나누어 고용하고 있는 형태 역시 보이고 있다. 공간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근로자의 숫자는 규모와, 운영에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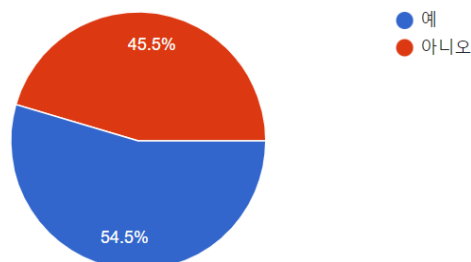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엘리베이터
- 휠체어, 유모차 공간 마련
- 유니버설 화장실(1층), 수유실(2층)
- 없음
- 엘리베이터 외 없음
- 엘리베이터, 휠체어용 안내데스크,
- 아니오
- 장애인 화장실, AAC
- 램프(휠체어전용), 엘리베이터
- 아니오, 단층입니다.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과 장비는 청년공간에서 매우 적게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아지는 청년층의 요구와 다양한 청년계층의 인식과 비교 하였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기본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단층이라는 점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로 꼽은 것은 담당자의 민감성 부재로 인식할 수 있다.

지역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응답 11개





## 지역 청년들과의 협력

지역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적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청년정책 정보 제공

질문: 청년정책, 청년활동, 청년단체, 민간기업(취업관련)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 팸플릿 제공은 제외합니다.)의 답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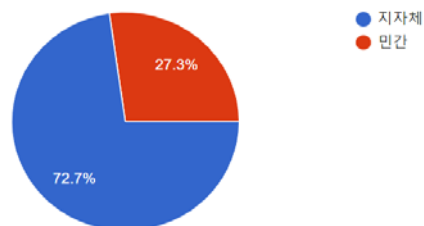
- 네
- 없음
- 홍보 협조 공문 발송 및 각종 홍보물 비치 통해 제공 중
- 없음(00시 청년 정책 외 청년통장 등은 담당하는 기관 전화번호 안내)
- 취업정보 요청 시 취업상담가능
- 홈페이지, SNS 통한 공유 활성화되어 있음.
-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청년정책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월 1회 멤버십 문자와 SNS,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 고용노동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청년센터, 경기도, 보건소, 시 취업과 관련된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함
- 없음 (청년 정책등 관련 홍보 포스터 부착)

청년들의 관심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과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공간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정책, 청년 친화 강소 기업과 같은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 미비 ( 11곳 중 6곳이 근로자를 상대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공간 운영 주체

공간운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응답 11개



본 조사에서 공간운영의 주체는 지자체에 해당하는 공간이 8곳 민간이 해당하는 공간이 3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공간 운영 주체가 지자체인 것의 장/단점과 민간인 경우의 장/단점을 살펴보겠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장점 : 청년에게 폭넓은 지원    단점 : 아직까지는 청년센터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해서 현장(센터)에서 애로가 많아 중앙에서 청년센터에 대한 명확함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 장점 : 구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개별 맞춤형 구인기업 매칭    단점 : 타 단체와의 협업 필요
- 장점 : 기반 시설 내 청년공간으로 청년층 접근성 양호 기반시설의 종래 인프라 활용으로 시너지 발생. 언론 홍보 시 시 홍보실 요청 등으로 홍보 가능    단점 : 기반시설 내 청년 공간으로 일부 이용 연령층 혼재. 별도 자체 홈페이지 조성 곤란
- 장점 : 정책에 부합하게 운영가능하고 운영비 절감
- 장점 : 많은 청년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고 편하게 생각하여 재방문률 및 신규 유입자가 많다.    단점 : 없음
- 장점 : 지자체와 협업이 원활하다.    단점 : 요구하는 자료가 많다.
- 장점 : 취업지원특화공간으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연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취업준비도에 따른 단계별을 지원하고 있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다.
- 장점: 지자체의 공간과 운영비, 인건비 지원.    단점: 민원과 시민 우선하는 공기관화. 청년에 대한 서비스 부재

다음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의 장단점을 살펴보겠다.

- 자율적 네트워킹 및 기획의 여지가 충분하나 지자체 내 청년 정책 제 개정 등에 대한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느림
- 사업기획, 운영은 00이 기획, 주도하나 00시와 수시 소통하며 환경변화(사회적 거리두기), 청년요구에 따라 개선, 반영하면서 운영됨  
장점: 청년공간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인지도 향상에 기여, 청년친화적,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획가능, 프로그램 운영의 완성도 높음, 청년 특성 이해와 협력능력 우수

단점: 공동운영의 책임소개 불분명, 00시 관리자, 담당주무관 수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방향, 운영, 정산방식 변경혼란

- 장점: 청년 감수성과 청년에 대한 이해도를 비롯한 전문성이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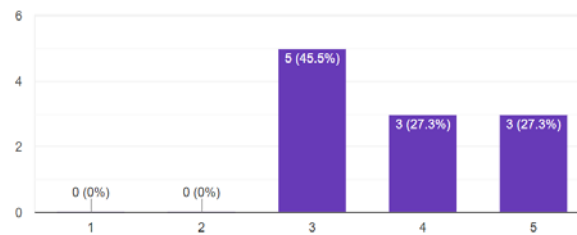
단점: 특별히 없음.

경기도 청년공간 현황에서 본 연구자와 분석한 바와 같이 지자체 운영공간의 특성과, 민간 위탁 운영공간의 특성은 차이가 있는 편이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 운영의 경우 청년기관과 지자체의 협업을 장점으로 꼽은 반면 청년공간의 공공기관화를 단점으로 꼽았다. 민간 위탁 운영 청년공간은 청년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의 우수를 장점으로 꼽은 반면 단점으로 정책의 변화와 담당자의 변경을 애로사항으로 꼽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 지원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을 때 설문조사의 응답은 매우 낮다는 응답부터 매우 높다는 응답까지 고르게 분포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청년정책, 청년공간 관심여부에 따라 차등있게 지원되는 청년공간의 현재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 인식

담당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청년공간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는 어떤 편입니까?

응답 11개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에 대해서 담당자는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후 청년공간 근로자 근로자의 업무만족도 인식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청년공간 관리자와 청년공간 현장 근로자의 인식이 비슷함을 나타내고 있다.

## 청년공간 발전성 인식

청년공간 발전에 대한 인식으로 장기적 계획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3곳의 청년공간은 현황유지, 없음에 답을 하였고 나머지 8곳의 청년공간은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청년공간의 강점을 묻는 설문에서 자유로움, 입주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구직 기회 제공 및 기업 매칭, 사회초년생 청년이 가진 문제 해소 지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청년들이 잘만 이용하면 최고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이 있다. 청년의 능력과 기회를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시군구 주도 시 담당공무원의 마인드에 따라 방향성 변경가능 측면, 특성과 성과평가가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청년특성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된다면 강점이다, 지역청년들의 교류 공간, 다양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 등 무료로 제공한다, 다양하고 에너지 있고 창의적인 실험들을 추구할 수 있음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단점으로는 미흡한 체계, 생각보다 외진 곳에 있기에 자체 프로그램 강화 필요- 지역 청년 실수요 (실태조사 등) 분석 통한 사업 개발 및 정비 통한 인지도 개선 필요, 비용적 한계로 인한 프로그램 수혜자 제한, 청년공간 이용 연령층 외 계층의 반발, 청년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음, 평가기관마다 다른 기준(취업율, 이용자수, 공간대관율, 만족도 등)을 적용하여 청년공간의 성과를 평가절하 하는 것, 예산이 적음, 위치가 접근성이 낮음, 교육장 단일공간을 청년공간으로 활용하다보니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에 한계가 있다. 청년공간에서 정형화된 실적을 추구하는 것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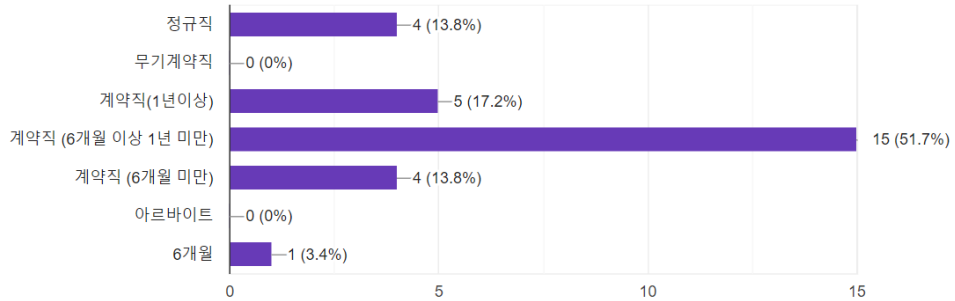
## 2. 현장 근무자 설문조사

현장 근무자 설문조사는 총 공간 45곳 중 18곳 29명의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응답률 40%) 현장 근무자의 근로형태와 만족도 청년공간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청년공간 현장 근무자의 고용형태는 계약직이라는 응답이 86%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의 형태를 띤 고용형태가 전체의 70%를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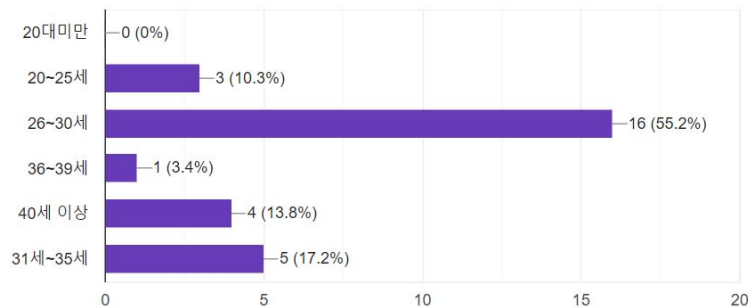
###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응답 29개



### 근로자님의 연령대를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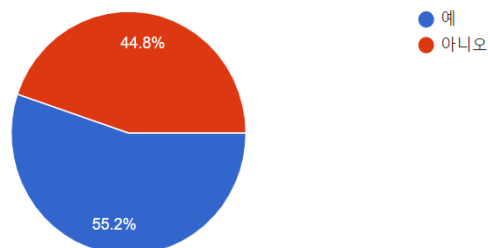
응답 29개



청년공간 근로자의 연령대는 청년의 나이로 규정되는 19세부터 39세까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6세부터 30세까지 나이대가 전체의 5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상 근로자 역시 10퍼센트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고용이후 별도의 청년정책, 청년 공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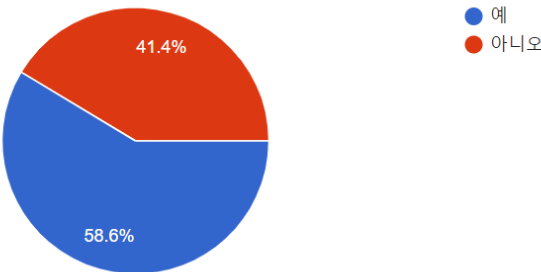
응답 29개



고용이후 별도의 청년정책, 청년공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16명에 해당하는 55.2%가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고, 13명에 해당하는 44.8%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공간에 따라 교육의 구성이 다르고 절반에 육박하는 청년공간이 청년정책, 공간에 대한 별다른 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이후 별도의 전문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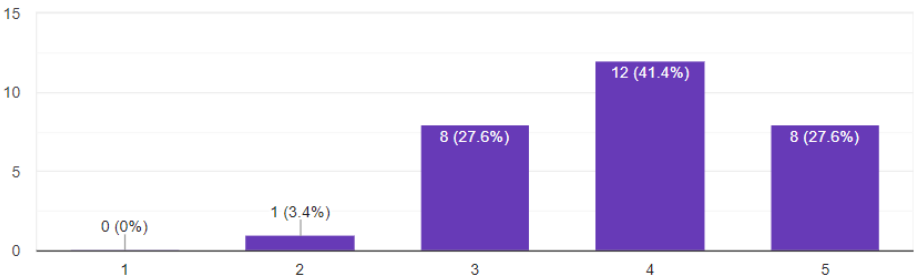
응답 29개



고용이후 청년정책, 공간 등 청년공간 근무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받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전문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는 수치는 보다 높게 집계 되었다.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수료한 공간 근로자는 58.6% 17명이었고, 진행하지 못한 근로자는 41.4%로 조사되었다. 응답 세부사항에서 청년정책, 공간 교육을 받은 근로자와 전문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받은 근로자에 응답한 조사자는 상당수 일치했다. 이는 청년공간에 따라 근로자 교육에 있어, 실시하는 곳은 실시되고 있지만, 실시 안 되는 곳은 어떤 교육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청년공간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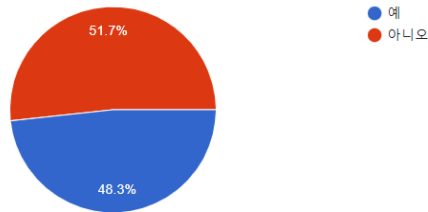
응답 29개



청년공간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상당수 만족하는 수치를 보인다. 이는 담당자가 청년공간 만족도 조사의 수치와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청년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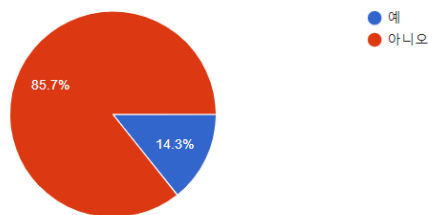
업무중 청년공간 SNS홍보를 담당하시고 계십니까?

응답 29개



SNS를 담당하시는 경우, SNS홍보 전략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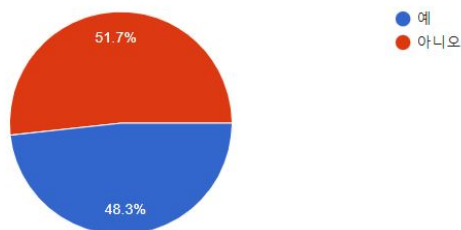
응답 21개



청년공간에 SNS 홍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51.7%에 해당하는 15명이 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14명에 해당하는 48.3%가 청년공간에 SNS 홍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SNS홍보 전략 교육은 85.7%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사되어 SNS 홍보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로자가 청년공간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 29개



청년공간 프로그램을 기획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으로 51.7%에 해당하는 15명이 없다고 답하였고 48.3%에 해당하는 14명이 있다고 집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공간 관리자가 아닌 청년공간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관여하는 근로자가 예상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 청년공간 담당자, 근로자 인터뷰

### 인터뷰 대상

인터뷰는 청년공간 담당자 4명, 청년공간 현장 근무자 3명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사전 설문조사에서 인터뷰 의향이 있으신 분 중에 설문조사 응답사항, 각 공간의 위치를 통한 표본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코로나 19사태로 가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각 인터뷰이와 각각 1시간 가량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청년공간 담당자는 A, B, C, D 청년공간 현장 근무자는 E, F, G 로 호칭한다.

### 청년공간 담당자 인터뷰

(민간 위탁 운영\_공통질문)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년공간으로서 지자체에서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것에 비교할 때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공무원 조직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정책을 만들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실 수 있지만, 청년센터의 특성상 대면 서비스가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더 적극적인 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 청년공간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청년이라는 계층이 어떤 대상에 특성들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개성도 뚜렷하고 적극적인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어필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반응을 해줘야지만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한 이해도 감수성이 높은 기관에서 청년공간을 운영하면 문제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공공은 아무래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대면 서비스 측면에서 시간 유연성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_공통질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으로서 민간에서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것에 비교할 때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의 장점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있어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결국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청년공간이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청년공간을 통해 지자체에서 제 3자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적인 정책제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 민간에 위탁하는 청년공간에 비해 자유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고 체계와 자금 운영현황을 좀 더 철저하게 증빙해야 하는 점에 있어 운영의 자유로움이 떨어지는 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공통질문) 경기도는 사실 서울에 문화, 소비, 직장 면에서 종속되어 있는 경향이 큼니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나 문화생활의 영역에서 청년들을 청년공간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도는 베드타운의 기능상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청년공간도 청년들을 모으는 입장에서 고민이 큼니다. 청년공간에서는 도내의 청년들이 자기계발과 더불어 취미,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주거지로서 청년들이 지역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있는 청년들이 거주지로 돌아오는 시간은 주로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하지만 청년공간이 문을 닫는 시간은 주로 10시입니다. 직업을 가진 청년, 직업을 가지지 않은 청년 모두가 청년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질문 A)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청년들의 솔직한 응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십니까?

강사님이 교육을 끝내고 나서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a4용지에 써서 제출하면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이전 운영단체의 경우 만족도가 100%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사용한 구글 설문조사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때문에 만족도 수치가 낮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을 해야만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질문B)민간이 위탁 운영할 때 발생하는 애로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운영 시 담당 공무원의 순환 근무제 때문에 인력이 계속 변동이 있는 편이 심한 것이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권자의 인사 변동이 자주 있는 편인데 새로 부임하실 때 청년공간의 운영취지를 재검토하자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청년들의 시급한 문제는 취업 문제로 취업 문제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신 문화, 공간 자체 운영만 집중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청년공간에 취지가 변화하면 운영 방식이 바뀌고 프로그램도 새로 기획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년공간에 대한 명확한 취지를 만들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질문C)청년공간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의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청년공간을 민간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만큼 위탁기간과 근로자의 근로 계약 기간은 동일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청년공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이라는 형태에서 오는 불안감들이 공간 현장 근무자 대다수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금역시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때 근무자들의 경력에 차등을 두어 임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이나 생활임금이 없다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인건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청년공간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여건은 금전적으로 열악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 청년공간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라 근로자의 환경도 지금은 다소 미흡하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개선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질문A)이용자가 청년공간을 이용할 때 주로 언급하는 불만 사항은 무엇입니까?

불만족 사례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음악소리입니다.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청년들은 대부분 취업 준비를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청년공간의 기능 중에서 본인한테 맞춰진 스터디 공간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청년공간이 모든 청년 이용자에게 열려 있다 보니 스터디를 제외하더라도 프로그램 참여자등 많은 참여자들이 유입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꺼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저희 공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청년공간에 접수되는 불만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별질문 D)인구수 대비 많은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각 청년공간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을 내실 있게 꾸려갈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합니다.

청년공간은 먼저 저희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취임과 더불어 청년공간 개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지자체의 특성상 서울로 인구 유출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 경기도내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지역에서 청년들이 갈만한 공간이 적습니다. 따라서 청년공간을 개설하고 각 공간마다 공간의 역할을 특성화 시키어 (예를 들어 일자리 중 IT 특성화 공간, 공예 특성화 공간) 청년들의 유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공간이라고 청년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 청년공간의 일부를 차지함으로써 청년공간을 이용하는 다른 청년들 역시 편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의 청년 유출을 막고, 새롭게 청년들이 역유입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청년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공통질문)경기도에 바라는 청년공간 개선사항으로 무엇이 있으십니까

청년공간이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운영 지자체에다가 확립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공간을 공공에서 운영해도 괜찮고 민간에서 운영해도 괜찮지만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취지가 변질되지 않게끔 중심을 잡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청년공간이 전체적으로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도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런 상황에서 청년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금전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센터 설립 취지 운영 방식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타 청년공간과 개별적인 노력으로 교류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공간에 대한 틀을 잘 알고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다면 자신 있게 공간 운영을 할 텐데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하는 불안감 속에서 운영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 공간운영자들도 또한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개선 사항들을 찾을 수 나갈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인터뷰 요약

민간이 운영하는 청년공간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인 곳이 많아 청년공간 운영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공간이 많았다. 또한 경기도의 청년공간은 주로 2019년에 설립시기가 집중되어 있는데 처음 개소하는 공간을 관리함으로써 현재는 청년공간이 자리잡아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도기라는 언급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되는 청년공간 중에도 청년공간 개설 시에 청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고 공간 운영에 있어 청년들이 많이 가는 카페 브랜드 조사를 진행한 공간도 있었다.

청년공간이 위치한 곳은 다르지만 인터뷰에서 문제 사항에 대한 언급은 비슷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수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청년공간에 대한 홍보 환경, 청년공간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청년공간이 가지는 가장 어려운 점은 홍보라는 점이 가장 많았다. 참고 의견으로 시골에는 청년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어야 한다는 의견과 도시에 청년들은 빈곤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공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의 담당자 역시 보여주는 수치를 단기간에 뽑아내려는 지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민간 위탁 청년공간 담당자와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

## □ 청년공간 현장 근무자 인터뷰

### 인터뷰 대상

청년공간 현장 근무자는 청년공간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며 민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관리하는 현장 실무자를 지칭한다. 현장근무자 인터뷰는 총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청년공간 현장 근무자로서 가장 어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

저희 지자체에 특성상 청년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직장인 분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인원 모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낮 시간대 하는 강의들은 사실 거의 직장인들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프로그램을 기획 하여 직장인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청년공간 근로자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 문제입니다.

근무환경, 처우는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다. 경력이 있음에도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공간에 근로자가 적어 야근이나 잔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공간 고용이후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십니까?

고용 이후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건 없습니다. 청년 정책 교육은 아니지만 청년 정책에 관한 발표회에 참석한 경험은 있습니다.

줌으로 교육을 한번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유료하라고 해서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는 않아서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기술이나 어떤 능력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계획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업무가 많은 데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회계, 민원, 프로그램 처리등 대부분의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청년공간에서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교육이 추가되면 좋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이 처리하다 보니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업무가 많아서 번아웃도 많이 오는데 심리 상담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터뷰 요약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인터뷰를 한 근로자들의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상당수 줌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임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근로자에게 필요하며, 인건비 역시 경력에 맞는 적정수준에 맞게 책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 □ 타 지자체 청년공간과 경기 청년공간 비교

### 서울 청년공간 오랑의 정책 비교

서울시는 2016년 청년수당이 첫 지급됨과 동시에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서울시청년청년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개소 당시 센터는 서울 모든 지역의 참여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서울시 내 6개의 거점 공간을 선정하여 매니저를 배치했다. 하지만 ‘거점 공간’이라는 불안정성은 청년을 비정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2017년, 센터는 서울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담당 매니저를 배치하여 매니저 한 명이 800여 명의 참여자의 욕구와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는, 개별맞춤지원인 ‘매니징사업’을 새롭게 추진했다. 사업을 통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① 청년을 대면할 수 있는 ‘공간’과 ② 청년의 삶에 대한 공감, 정책에 대한 이해가 갖춰진 ‘전담 인력’이 필요함을 발견했다. 2018년, 청년수당이 규모화 되면서 더 많은 청년에게 폭넓은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매니징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생활권 가까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현실화하고자 청년지원 전달체계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시범적으로 3개 자치구(은평, 양천, 성북)의 청년공간에서 청년지원 전담인력 2명이 상주하여 참여자를 지원하는 <자치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평가와 연구를 통해 광역(서울)단위 지원보다 생활권에서 가까운 자치구 단위에서의 지원이 참여자에게 정책 접근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매니저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앞선 사업과 연구를 토대로 청년지원 전담인력인 ‘동네매니저’를 확대 모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치구 단위 청년지원모델 사업>을 진행했다. 서울을 8개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공간기반으로 청년을 지원할 민간 협력 주체를 발굴했다. 교육을 마친 ‘동네매니저’ 2~4명이 해당 공간에 상주하면서 참여자를 직접 대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니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해당 사업이 참여자에게 정책에 대한 지리적, 심리적, 정보적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사업이 현재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모태가 되었으며, 전담인력 양성을 위해 설계한 교육과정은 오랑 실무자를 위한 기초교육의 토대가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2020년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근간으로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그간 서울시가 확대해 온 청년정책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서울청년센터 오랑’이 바로 서울시의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2020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권역별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청년센터(YC)오랑 안내서>

## □ 지역 청년공간과 비교

지역 청년 공간으로 두 지자체의 청년공간을 방문하였고 한 곳의 지자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지만 관리, 운영에 있어 경기도 도내 청년공간과 운영방식, 프로그램 진행에서 대동소이함으로 본 논문에서 참고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II 결론

### 1. 결론 및 시사점

경기도의 청년공간은 현재 45곳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청년공간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개설을 원하며 다양한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공간이 없고, 청년들이 거리의 길가와 카페 값비싼 독서실로 모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청년공간 한 곳의 개소는 그 존재만으로 값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인터뷰, 집단의 차이를 막론하고 대두되었던 문제가 있다. 청년공간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담당자의 변화에 따라 청년공간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언제라도 청년공간의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공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집단을 위한 공간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노인정,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과 같이 운영방식이나 운영범위에 대해 명확한 확립이 된 집단의 공간의 운영을 참고할 만 할 것이다.

또한 공간 운영에 있어 담당자가 자주 변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청년공간은 대부분이 신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청년공간으로서, 청년공간 운영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방문자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와 같은 수치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실제 방문자,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와 같은 내실 있는 수치에 집중할 것을 권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청년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 내일스퀘어라는 도와 지자체와 협력하는 청년공간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는 경기청년포털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기록된 청년공간의 수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적어도 청년공간에 대한 현황과 기본적인 통계 프로그램의 진

행상태, 만족도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진행 되었을 때에야 청년공간 자체의 정의와 매뉴얼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인다.

본연구자는 11곳의 청년공간 담당자와 18곳의 청년공간 근무자의 설문조사와 7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지만 청년공간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명확하게 설명해준 담당자, 근로자는 없었다.

도에서는 명확한 청년공간에 대한 이해 수립을 위한 연구 착수를 권장한다.

특히 서울시 청년공간 오랑의 경우, 역할, 매뉴얼, 현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경기도 청년공간 역시 근무자와 담당자의 혼선이 없도록 청년공간의 역할을 정확히 명시하고 공개하여 모든 청년에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가 시급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년공간 근로자의 대다수는 근무 이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계약의 형태 또한 1년 이하의 비정규직이 상당하다. 이들이 계약 종료이후에도 청년공간 근무한 것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 청년공간 오랑의 경우 7주간의 청년공간 근로자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역시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권장한다.

## 참고문헌

- 고가온, 김희수, 정석(2020), "완주군 청년공간이 청년의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 도시 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 채진기 (2019), “시흥시 청년공간 지원정책이 이용자의 지역정착의사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제 (2020),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연구:광역 지방정부 실태 비교를 통해, 현대정치연구소
- 오재호, 이현우, 천영석 (2018),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 정책연구 [네이버 지식백과] 88만원 세대 (대중문화사전, 2009., 김기란, 최기호)

